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도정

1990년 12월 15일 창간 안내 041-635-2484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제1061호
2026년 3월 5일 ~ 2026년 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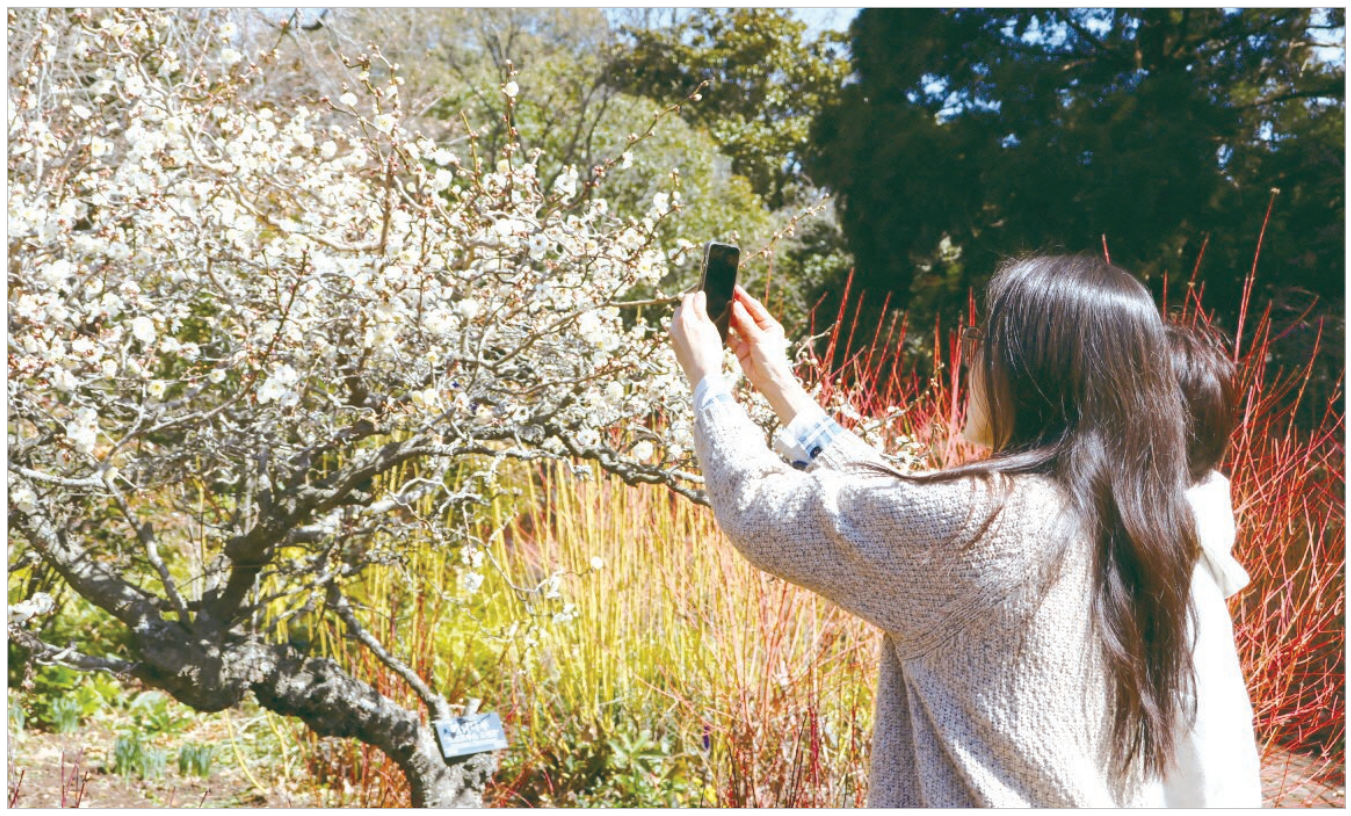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치유의 정원서 몸·마음 회복"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D-50

4월 25일부터 5월 24일
꽃지해안공원 일원 개최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
9개 분과 700여 명 참여



봄소식 알리는 매화

절기상 경칩(3월 5일)을 앞둔 4일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탐방객들을 맞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은 바다와 맞닿아있는 유일한 수목원으로,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사진/천리포수목원

오는 4~5월 개최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충남도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 기간 정원 전시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의 핵심 공간인 야외정원은 태안의 바다와 숲, 정원이 어우러져 시각·청각·후각·촉각이 연결되는 치유 동선으로 꾸며지고, 치유정원은 테마형 정원과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꽃과 허브, 지역 특산 원예작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을 선보이는 센셋레스토랑도 운영돼 태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미식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 안면도수목원과 지방정원을 연계한 행사 등이 마련된다.

박람회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https://2026taeanexpo.or.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한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범도민지원협의회도 출범했다.

3월 3일 열린 범도민지원협의회 발대식에서 도민 대표는 '치유의 약속을 도민과 함께 실천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성공개최 의지를 다졌다.

범도민지원협의회는 운영위, 자치·자원봉사위, 보건복지위, 농축수산위 등 9개 분과 700여 명으로 구성돼 자원봉사 운영, 교통질서 확립 등에 참여하게 된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72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041-675-8161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도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

도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5월 27일까지 집중 접수

충남도는 3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공모 분야는 도 정책사업(일반분야/청년·청소년, 저출산, 도민안전) 10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50억원이며, 충남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집중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로 이월해 심사한다.

일반분야는 도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간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환경, 거버넌스, 문화관광개발, 지역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청년·청소년 분야는 청년 일자리·주거환경 개선 및 청소년 교육·진로체험 등 지원사업, 저출산분야는 일·가정양립, 인구소멸지역 지원, 아동·여성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도민안전 분야는 도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재해 예방사업이며,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사업 제안은 충남서로e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041-635-3608

지면안내

청년친화기업 채용	2면
충남우리마을	4면
백제문화전당 개관	5면
이달의 문화행사	9면
젠더퀴즈	10면
충남이어가	12면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13면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청년친화기업 청년 80여명 채용

그린케미칼·파라텍 등 11개사
기업 채용 누리집 통해 확인



충남청년친화기업 11개사가 올해 80명 이상의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올해 반도체·로봇·화학·환경·자동화·소방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연구개발부터 품질 관리, 영업,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생산직까지 다양한 직무에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친화기업은 직접 임금, 고용, 재정, 복지, 사업장 환경, 경영진 인식, 청년 재직자 체감도 등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도내 기업이다.

기업별 채용 규모는 소규모 수시 채용부터 최대 10명 이상 채용까지 다양하며, 채용 시기는 올해 1월부터 연중 상시 또는 상반기 집중 채용 형태로 운영된다.

그린케미칼은 생산, 연구, 영업 분야에서 연중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신입 기준 연봉은 5500만 원 수준에 기숙사 1인 1실 등을 제공한다.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구 제조 기업 파라텍은 대졸 신입 기준 연봉은 3800만 원 수준이며, 지역수당 360만 원 추가 지급 등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토와한국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구개발, 영업, 제조직 등 3개 분야에서 총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신입 기준 연봉 4014만 원에 성과 상여금(연봉 10% 이상)이 별도로 지급된다.

기업별 세부 채용 정보는 충남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과 기업별 채용 누리집,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관 041-635-3984





"호랑이 뱃속에서 무슨 일"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어린이 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울림 공연'을 운영한다. 2월은 전래동화를 소재로 '호랑이 뱃속 잔치' 공연이 진행됐으며, 우리 고유의 나눔 문화를 쉽고 재밌게 풀어냈다. 어울림 공연 일정 및 참여 등 자세한 내용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홈페이지(www.insu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041-631-8931

아동수당, 8세→13세 미만으로 확대

지방 거주 아동 추가 지급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공익직불금 기간 내 신청하세요"

5월 말까지 방문·비대면 접수

충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대면 신청과 인터넷, 모바일, ARS를 활용한 비대면 신청이 있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농업인·관외경작자(50㎞ 이상)·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임야 필지 등록자 등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해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농업인이 대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화 신청(☎1334)이 가능하며,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피시(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e)지(www.nongupez.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농업과 041-635-2523

양송이 재배사 공기 순환·수분 중요

농기원, 고품질 생산 관리법 안내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양송이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사 내 수분·환기 관리법을 안내한다.

양송이는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 보온위주로 관리하면서 환기가 부족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수분 균형이 깨져 양송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봄철을 앞둔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재배사 내부 환경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기는 내부 환기팬을 활용해 공기를 꾸준히 순환시켜 재배사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2000ppm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수분 관리는 내부 습도의 경우 80-90%, 배지와 복토의 수분 함량은 60-6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수분이 부족하면 갓 표면이 갈라지거나 변색이 되므로, 건조할 때는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63

인구감소지역

청년 로컬창업 프로젝트

청년 로컬창업가·멘토 모집
3월 31일까지 구글폼 신청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
공고문 필수 확인
로컬창업 청년멘토 모집
로컬창업 경진대회

충남도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충남 청년 로컬창업 경진대회', '충남 로컬창업 청년멘토'를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로컬창업 경진대회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예정인 청년 예비창업가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별 최소 1팀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발규모는 총 30팀이다.

팀 구성은 원칙적으로 1인이며, 공동대표자(또는 예정자)의 경우 최대 2인까지 1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발 시 창업 필수지식 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지원금(업체당 500만 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같은 기간 로컬창업 청년멘토도 공개 모집한다. 마찬가지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1명 이상 총 18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청년 기창업자 또는 폐업자(사업경력 3년 이상, 비영리기업 제외)라면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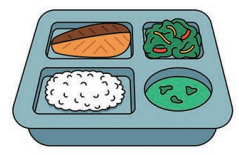
청년멘토는 청년 로컬창업 관계망 운영·관리, 창업 컨설팅 수행 및 연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충남청년포털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87, 3889) 누리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관 041-635-2062

'천원밥상'으로 든든한 하루 시작

도내 11개 대학 운영



충남도는 도내 11개 대학이 '2026년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할 대학은 건양대, 공주교육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전통문화대 등 11곳이다.

각 대학은 지역쌀 등 농산물을 사용해 지역 농가 발전에도 기여한다.

각 대학은 12월까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7

충남도청 최정윤, 대구마라톤 우승

국내부 여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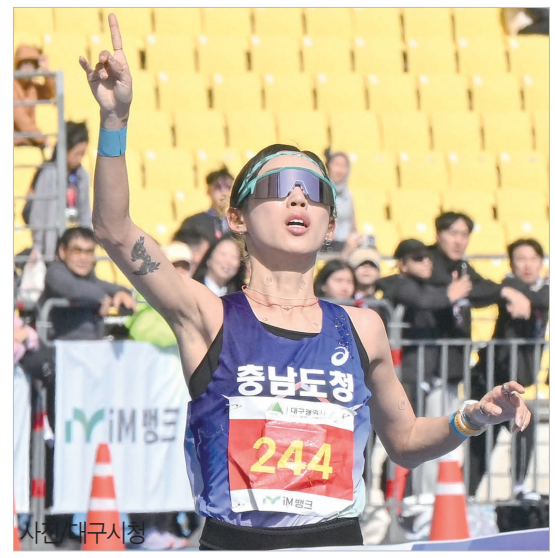


사진 대구시청

충남도는 도청 여자마라톤팀 최정윤(33·사진) 선수가 2월 22일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6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국내부 여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발 직후부터 줄곧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쳐 2시간 32분 35초로 국내부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4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엘리트 풀코스(42.195㎞)에는 해외 50여 명, 국내 100여 명 등 150여 명의 공인 선수가 출전했다.

/체육진흥과 041-635-3858

주요 하천 수질검사…결과 누리집 공개

보건환경연구원, 하천 29개 대상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주요 하천 29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수 측정망 수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매월 초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천 상태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은 하천 수질의 대표 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 등 19개이다. 검사 과정에서 수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추가 검사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61



그림으로 보는 충남의 과거와 오늘

태안읍성 중심부 근대한옥



1930년생 태안 동문리 근대가옥은 한옥의 형식을 바탕으로 서양식 생활 방식을 접목해 지은 집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특징과 건축 기법을 잘 보여 주어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태안군 태안읍성을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나지막한 집들 사이,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곳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긋한 봄볕이 고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오후, 간간이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들 발걸음이 더해져 한층 정겹습니다.

연둣빛 지붕 아래 돌이 콕콕 박힌 담벼락, 바람을 타고 삐걱이는 빛바랜 나무문을 스케치북에 옮깁니다.

/그림·글 어반스케치 작가 최미경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온라인(Zoom)교육
충남신용보증재단 CHUNGNAM CREADIT GUARANTEE FOUNDATION
3월
2026 충남 청년 창업 창직 지원사업
동네창업학교
3.25.-3.26.

모집대상 충청남도 소재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6. 1. 3. ~ 2007. 1. 2. 출생자)

교육내용 생활업종 창업 단계 맞춤형 실무 교육(2일, 총 12시간 과정)
- 생활업종 :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제조업(생계형 적합 업종)

구 분	시 간	과 목 명
1일차 3.25(수)	9:50 ~ 10:00	동네창업학교 소개
	10:00 ~ 12:00	인테리어 계약
	13:00 ~ 15:00	SNS 마케팅
	15:00 ~ 17:00	제품·서비스 디자인
2일차 3.26(목)	10:00 ~ 12:00	상권·입지 분석
	13:00 ~ 15:00	상가 임대차 계약
	15:00 ~ 17:00	세무
	17:00 ~ 17:30	청년 지원 정책 안내

수료혜택 1:1 맞춤형 창업컨설팅 연계 지원
- 혜택대상: 충남에서 생활업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2025년 이후 생활업종으로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만 제공

신청방법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경영지도 ▶ 교육
QR CODE

문 의 처 창업성장지원부 이은주 계장(☎041-530-3803)

충남도정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편집인 공보담당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484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군 오가면 원천2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다올' 음악 동아리 회원들이 마을식당에 모여 악기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모여 드럼, 전자 호른, 건반, 챔버린 등을 연주하며 화합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소를 품은 마을, 돌봄으로 잇는 희망



충남 우리 마을

② 예산군 오가면 원천2리

예산군 오가면에 자리한 원천2리. 이곳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온양머리'라 불러왔다. 이름처럼 예로부터 마을은 햇살이 따뜻하고 봄철 식물이 잘 자라 미나리 농사로 유명했다. 따스한 기운 덕에 인근 동네보다 미나리가 먼저 고개를 내밀어, 일찍이 미나리를 채취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던 활기찬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복철규(80) 노인회장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지형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소 한 마리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편안히 누워 있는 형국"이라며 "소는 곡식이 풍부한 들판을 마주하고 있고, 그 곁에는 송아지가 어미 젖을 먹고 자라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소개한다.

밥심으로 다지는 공동체

원천2리의 변화는 2023년 11월 문을 연 '황금물결 마을식당'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마을회관 인근에 자리 잡은 이 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마을의 정서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황금물결 원천2리 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 식당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 주체가 돼 식단을 꾸리고 손님을 맞이한다. 전문 요리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맛을 내는 법을 익히고 책임지려는 주민들의 자세가 식당의 내실을 다졌다.

식당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자(78) 마을가꾸기 총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라 직접 요리를 배웠다"며 "집밥처럼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자연 재료를 써서 담백하게 맛을 낸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의 말처럼 이곳의 음식은 화려하지 않으나 정성이 가득하다. 식당은 매일 아침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한다. 또한 이곳은 마을의 사랑방이 돼,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고령임에도 식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숙예(91) 어르신은 주민들을 맞이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강 어르신은 "손님이 오면 부족함 없이 대접하는 것이 즐겁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강 어르신의 미소는 원천2리가 가진 따뜻한 환대 문화를 상징한다. 식당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입소문이 나면서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메리골드 꽃밭.





주민들이 합심해 조성한 '황금물결 마을식당', 문을 연지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어엿한 맛집으로 등극했다.

마을식당 옆에 조성될 '실버홈' 조감도.

선율에 담은 행복한 미래

마을의 변화는 식탁에서 그치지 않고 선율을 타고 이어진다. 원천2리에는 2020년 12월 창단한 '다올' 음악동아리가 있다.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의미를 담은 이 동아리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또 다른 축이다.

평생 농사만 짓던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호른이라는 악기는 생소한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악보를 읽는 것조차 낯설어 계이름을 색깔로 표시해 연주를 익혀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능숙하게 악보를 읽으며 합주를 선보일 정도가 됐다.

음악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넘어 치유의 수단이 됐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호른 연주를 배운 양혜선(78) 어르신은 "연주할 때 호흡이 딸려서 힘들긴 하지만 배우는 게 즐겁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음악이 주는 활력을 전했다. 합주를 위해 복식호흡을 하고 서로의 음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화합의 바탕에는 복철규 노인회장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자리한다.

이장으로서 15년 가까이 마을을 이끌어 온 복 회장은 "마을 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며 주민들과 마음을 모으려 애썼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그는 마을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도 주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복 회장은 "밥을 해 먹고 음악을 함께하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기분 좋게 나와 일한다"며 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분위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강조했다.

충남실버홈으로 여는 새 희망

현재 원천2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5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된 이 공간은 단순한 공동주거 시설을 넘어, 돌봄과 주거, 소통이 공존하는 거점 공간이 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시설을 통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원천2리의 사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가 어떻게 희망을 싹틔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미나리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던 온양머리의 옛 기억은, 이제 돌봄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가고 있다. 비록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파도는 여전히 높지만, 원천2리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파도를 넘어가고 있다.

밥심으로 정을 나누고 음악으로 호흡을 맞추며,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들의 행보는 농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원천2리의 소는 오늘도 평화로운 들판을 바라보며, 따뜻한 돌봄의 공동체라는 든든한 새끼를 품에 안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

/황동환 무한정보신문(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공주 1500년 역사 담은 '백제문화전당' 개관

백제 역사 상시 체험·향유
전시·공연·체험공간 등 갖춰


공주 백제문화전당 전경.


백제문화전당에 초대형 LED월, '감각의 근원'을 바라보는 관람객. 공간은 백제 문화의 흐름을 형성한 금강을 시청각적으로 재구성한 작품 .

백제 왕도 충남 공주시에 1500년 시간을 깨우는 문화공간 '백제문화전당'이 2월 27일 문을 열었다.

백제문화전당은 ▲비단뜰(전시장) ▲고마홀(공연장) ▲무릉공방(체험교육) ▲아트숍 ▲디지털수장고 ▲야외마당 공간을 한곳에 집약했으며 단순 관람형 공간이 아닌 '보고·듣고·체험하는' 몰입형 복합문화플랫폼이다.

1층 비단뜰에서는 555.3719m² 규모의 몰입형 디지털 전시 '빛으로 잇는 시간, 백제'가 연중 운영된다. 3월 15일까지 개관 기념 무료로 특별운영한다.

전시는 ▲감각의 근원 ▲시간 위로 흐르는 금강 ▲신화가 흐르는 숲 ▲백제 하이퍼리얼 등 7개 구간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청각·촉각을 아우르는 환상적인 연출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예술성을 현대적이고 공감각적으로 구현했다.

1층 29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 공연장 고마홀에서는 백제 인물과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상설공연이 펼쳐진다. 개관식에 맞춰 첫선을 보인 댄스컬 '비트인더미러: 빔'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용봉문환두대도'의 전설을 K-POP댄스와 퍼포먼스, 화려한 영상으로 펼쳐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공연은 3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5시에 공연한다. 백제문화전당 누리집과 NOL티켓에서 개관기념으로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50% 특별할인한다.

뮤지컬 '더 킹: 무령' 가족극 '왕관을 찾아서: 진묘수와 시간의 문'과 등도 순차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2층 무릉공방에서는 ▲3D 프린터 체험 ▲도자 체험 ▲섬유 체험 등 백제 역사와 지역 예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념상품 공간인 아트숍에서는 진묘수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 상품이 눈길을 끈다.

또한 백제문화제 디지털 아카이브존과 이벤트 마당, 어울림 마당과 휴식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도 갖췄다.

/공주시

홍성, 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관내에 입학생 959명 대상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홍성군에 거주하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2026년에는 총 959명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은 해당 학교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외 고등학교 입학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외 주소지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5월 1일부터 22일까지 2차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일부 조건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시군에서 교복지원금이나 입학준비금을 받고 있거나, 지급 시점에 주민등록 주소가 홍성이 아닌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충남도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감액된 차액을 받게 된다.

입학준비금은 교복, 가방, 학용품 등 입학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홍성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41-630-1539)으로 하면 된다.

/홍성군


봄 앞둔 마늘밭, 부지런한 손길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마늘밭에서 농민들이 잡초를 제거하며 작물 생육 관리에 한창이다. 마늘은 겨울을 난 뒤 이 시기의 잡초 관리와 웃거름 작업이 중요한 작물로, 농업인들은 이른 봄부터 밭을 돌보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한다. 사진/박현영 작가

새로운 인생 시작

독자투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직장도, 나고 자란 곳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오다가 다소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충남 아산에 직장이 있어 장거리 연애를 어렵지만 즐겁게 이어나갔다.

연애 1년 후 결혼했으나 나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나름의 인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익숙하고 편안한 서울 생활과 근처에 부모님이 계시는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주말부부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서울과 충남은 2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충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그렇게 멀고 시골 같은 느낌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이었다.

8년간의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늙기 전 지금이 아니면 주말부부를 끝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함께 살아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내가 지역을 옮기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인 것 같아 남은 인생은 충남도민으로 살아보기로 합의했고, 결정하자마자 작년 9월에 이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느지막한 나이에 주변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었지만 집 앞에서 뵙는 어르신마다 이사 왔냐며 정겹게 안부를 나눠주시고 아이들까지 소리 내어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잘한 결정을 했구나' 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까지 든다.

내가 살고 있는 아산은 동네에 큰 마트나 병원, 영화관, 도서관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생활권 안에 모든 게 있으니, 서울과 다른 점도 잘 모르겠다. 오히려 동네가 작은 소도시 같아 생활의 만족도는 서울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주변에 아름답고 예쁜 곳들도 많아 산책하거나 가볍게 운동하기에도 좋다.

처음 이사 온 시기가 작년 가을이라 신정호수에서 기분 좋은 밤마실을 할 수 있었고, 곡교천의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며, 현충사 달빛 야행 축제나 외암민속마을 짚풀 문화제 같은 작지만, 알찬 행사들과 다양한 테마의 아산시티투어도 있어서 충남의 매력을 한껏 받아들일 수 있었다.

26년 첫겨울은 온양온천의 따뜻함으로 몸을 녹이고, 천북굴단지에서 생굴과 굴찜을 먹으며 보양하고, 남당항 새조개 축제를 즐기며 겨울의 매력을 물씬 느낄 예정이라 충남에서 첫겨울이 너무나 즐겁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예쁜 꽃들이 가득한 식물원과 상화원, 간월암, 자연휴양림 같은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여름이 오면 해외여행 대신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실컷 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물론 그전에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에도 적응해야 하고, 그동안 잠시 쉬었던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도 알아봐야 하지만, 이 모든 낯섦이 어색하면서도 즐겁다.

/류지민(아산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보내는 곳 : cnnews@korea.kr
*원고 800자 이내, 성명·전화번호·주소·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문의 : 041-635-4938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당진 스마트팜사관학교 입주자 모집

딸기 4명·방울토마토 3명 선발


당진시 스마트팜사관학교 전경.

당진시에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온실 운영 경험과 재배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팜사관학교' 입주자를 모집한다.

스마트팜사관학교는 청년이 실제 농장을 운영하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문 제출로 접수한다.

선발인원은 총 7명으로, 딸기 온실 과정 4명과 방울토마토 과정 3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24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으로 신청 시 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최종 선발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당진시로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

접수는 13일 오후 5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처는 스마트팜통합관제관리동(당진시 보덕포로 574)이다.

발표 심사는 3월 18일 예정이며, 합격자는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전년도 충남도 농작물 총수입의 10% 이내에서 책정하며 관련 규정과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대부 기간은 2026년 8월 1일~2029년 7월 31일 최대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041-360-6365)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484

천수만 흑두루미 탐조투어 떠나요

3월 22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
서산버드랜드 누리집서 예약


천수만에서 관찰된 흑두루미 모습.

서산시 천수만에서 3월 22일까지 주말마다 겨울진객 흑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투어가 진행된다.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탐조투어는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되며, 천수만에 도래한 흑두루미의 생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서산버드랜드 주차장 내 임시사무실 앞에 집결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20인승 버스에 탑승한다. 이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천수만 흑두루미 도래지를 이동하며 관찰하게 된다.

투어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3회씩, 회당 1시간 30분 코스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이며, 3월 7일과 14일 오전 10시 30분 회차는 운영되지 않는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회당 참여 인원은 19명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산버드랜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잔여석이 있을 경우 당일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체험비는 성인과 어린이 구분 없이 1인당 1만 원이며, 서산버드랜드 입장권 소지자는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하며, 당일 취소 시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 사무국(☎ 010-8594-58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는 주로 일본 이즈미나 우리나라 순천만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 시베리아 번식지로 돌아간다. 천수만에는 2월 9일부터 도착하기 시작해, 2월 13일 기준 1천마리를 넘어섰다.

/서산시



홍성 '한달 살기' 참가자 모집

숙박·식사·교통 등 지원



홍성군에서 '한 달 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홍성 여행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충남 외 지역 거주자(개인 또는 단체)다.

선정된 팀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간 홍성군에 체류하며 여행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지인 초대 및 방문 인증, 여행 후기 작성, SNS 콘텐츠 게시 등 지역 홍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부여된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팀당 1일 5만 원) ▲부대비(식비·교통비, 팀당 1일 2만 원) ▲체험활동비(인당 10-15만 원) ▲여행자보험비(인당 2만 원) 등이며, 여행 종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비로 정산 지원한다.

희망자는 3월 16일까지 참가신청서, 여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guqrors@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홍성군

청양·태안 지역상품권 12% 할인

보유 한도는 하향 조정

청양군과 태안군의 지역상품권 할인율이 3월부터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강화 정책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달부터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상향된 12% 할인 혜택은 3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청양에서는 운곡·대치·장평·비봉면 등 4개 지역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에서도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청양군은 특정 다액 구매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 통합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중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된다.

태안에서는 지류와 카드, 모바일 형태를 모두 합산해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및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과 구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양군·태안군

3월부터 '서천 시티투어' 운영

당일치기 4개 노선 구성

3월부터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2026년 서천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서천 시티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버스를 이용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서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보는 당일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운영 코스는 서천·장항·판교역 등 기차역을 거점으로 보랏빛 코스(자연·생태), 푸른빛 코스(해양·힐링), 금빛 코스(문화유산)와 함께 군산·익산시와 연계한 동백코스 등 총 4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시기별로 한산모시문화제, 장항 맥문동 꽃 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서천 시티투어 이용 요금은 대인 기준 4000원이며 10명 이상 예약 시 운영된다.

자세한 코스 일정과 예약 문의는 서천군 문화관광 누리집 또는 서천종합관광안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천군

계룡 병영체험관 봄맞이 이벤트

매일 선착순 20명에 기념품

3월 한 달간 계룡병영체험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SNS 인증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병영체험관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고 계룡시청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된다.

이후 안내데스크 확인 절차를 거쳐 기념품 3종을 받을 수 있다.

기념품은 열쇠고리, 마우스패드, 손톱깎이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 선착순 20명에게 제공되며 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필수 해시태그는 #계룡시병영체험관 #특별한데이트 #계룡시봄나들이 #병영체험이다.

/계룡시

두쫀쿠 말고 '새콤달콤' 딸기 찹쌀떡 어때요?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맛있는 충남'

(6) 딸기와 논산딸기축제



딸기 찹쌀떡.



논산 딸기.



논산 딸기축제 현장.



딸기로 만든 디저트 제품.

'젓갈의 고장'으로 불렸던 충남 논산이 이제는 '딸기의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논산이 딸기 고장으로 변모한 것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논산의 딸기 생산량은 2025년 기준으로 1911농가(1028ha)에서 2만 8535톤. 전국 생산량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밀양)에 이번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딸기'하면 밀양보다 먼저 논산을 생각한다.

재배 역사 50년을 지닌 논산이 '딸기 메카'로 부상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딸기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꾸준한 재배 연구 기술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지역산업 전략까지 합쳐진 결과다.

충남 서부 내륙 평야에 있는 논산은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일조량이 풍부해 딸기 재배에 유리하다. 특히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 덕분에 딸기 재배가 잘 된다. '설향', '킹스베리', '비타베리' 등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급하는 노력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논산시의 스마트 팜과 같은 첨단 재배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에서는 모두 45만 명이 다녀갔으며 가지고 간 딸기 25톤을 모두 판매했다.

내년에는 논산에서 세계딸기산업엑스포도 열린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딸기

여행할 때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음식도 알고 먹으면 더욱 맛있는 법.

딸기는 수많은 품종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딸기의 종류는 설향, 킹스베리, 금실, 비타베리 등 대략 4가지다.

설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품종으로 부드럽고 톡 쏘는 단맛과 은은한 산미가 조화를 이룬다. 당도는 약 10~10.5° Bx(브릭스)다. 식감이 부드럽고 향이 풍부하다.

킹스베리는 이름 그대로 대형 딸기로 '황제 딸기'로도 불린다. 크기가 아기 손만큼 크고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이다. 당도는 설향과 비슷한 9.8~12 브릭스다. 과실이 커 시원하게 먹기 좋고, 생과일 디저트에 잘 어울린다.

금실은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는 딸기 품종으로, 단맛이 강하고 산미가 적으며 식감이 좋다. 당도는 14브릭스 수준으로 달콤함이 뛰어나다. 생과일 디저트나 과즙을 즐기기에 매우 적합하다.

비타베리는 비타민 함량과 색, 풍미 등이 강하고 과즙이 풍부하다. 비타민 C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평균 12~13 브릭스로 영양적 강점이 있어 생과일이나 선물용으로 인기다.

이밖에 매향, 메리퀸, 죽향, 만년설 등 전통 품종도 있다. 또 지역에 따라 부여의 굿뜨래 딸기, 홍성의 홍희 등의 브랜드도 있다.

딸기는 브릭스 수치가 높을수록 단맛이 강하며 산미(신맛)와의 조화에 따라 맛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논산지역 딸기는 설향을 기반으로 금실, 비타베리 등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 킹스베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고의 선물용으로 꼽힌다.

딸기축제, 3월 26일부터 개최

논산딸기축제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논산딸기축제는 초기에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로 위기에 놓였던 논산 딸기를 보호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작게 시작했다. 이후 방문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체험 프로그램, 공연, 산업 연계 요소가 강화되면서 농업·가공·관광이 연계된 산업형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년에는 45만 명, 지난해에는 53만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됐다.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국가가 인정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 중 하나로 평가받은 올해 축제는 '논산딸기, 세계를 유혹하다'라는 주제로 3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나흘간 논산시 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달콤한 딸기를 직접 구매하고 맛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 및 시식존, 딸기밭에서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 수확 체험존,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고 만들 수 있는 쿠킹클래스존, 디저트 경연대회 및 굿즈 판매존 등이 운영된다.

베리베리버거, 베리베리돈가스, 베리베리치킨 뿐만 아니라 딸기듬뿍수건케이크, 딸기 비빔밥, 딸기 국수, 딸기 두바이 초콜릿, 딸기 쫀득쿠키, 딸기 떡볶이 등 이색 먹거리도 선보인다.

이번 축제장에서는 향토음식점 6팀, 푸드트럭 1팀(5개 업체), 딸기디저트(개발 10팀, 일반 5팀), 체험 부스 7팀, 판매 부스 18개가 운영된다.

축제장에 갈 때 일반 승용차는 불편하다. 외곽 공용주차장에 세운 뒤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편리하다. 축제를 즐긴 뒤 인근 명재고택, 탑정호, 선샤인랜드, 강경근대문화거리, 백제군사박물관 등을 가보면 좋을듯하다.

/임종관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딸기 디저트

▶딸기찹쌀떡

재료 : 딸기(떡 개수만큼), 팥 300g, 찹쌀가루 300g, 설탕 20g, 소금 약간, 뜨거운 물 300㎖, 전분가루

만드는 법

① 팥은 푹 삶아 익혀 곱게 으깬 뒤 탁구공 만한 크기로 뭉쳐 놓는다.
② 딸기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꼭지를 잘라낸다.
③ 찹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잘 저은 뒤 전자레인지에 2분간 2회 반복해 익힌다.
④ 익힌 찹쌀은 전분을 뿌린 뒤 알맞은 크기(35g 정도)로 소분한다.
⑤ 딸기를 팥으로 둥글게 감싼 뒤 1개씩 소분한 찹쌀로 감싸면 완성.

▶딸기스무디

재료 : 딸기 10개, 바나나 1/2개 (선택), 우유 또는 요거트 1컵, 얼음 약간

만드는 법

①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간다.
② 컵에 붓고 딸기 슬라이스로 장식하면 완성.



논산딸기엑스포 홍보판.

2026 논산딸기축제 주요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축하공연, 거리 퍼레이드, 딸기체험·전시·포토존, 딸기 K-food 쿠킹·시식 프로그램,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홍보관 운영, 산업교류존(국내외 바이어 상담 및 산업 전시)
부대 프로그램	딸기 디저트 경연대회, 지역 예술단체 공연 및 문화예술 무대, 딸기 가공·유통 산업 전시,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 딸기 굿즈·기념품 판매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프로그램	딸기 수확 체험, 딸기잼·디저트 만들기 체험, SNS 참여 이벤트 및 스탬프 투어, 체류형 연계 관광 프로그램(인근 관광지 투어 연계)
기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안내 운영, 글로벌 푸드존 및 푸드트럭 운영, 지역 간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전·위생 관리 강화, ESG 기반 친환경 축제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하늘에서 바라본 고대도 전경. 사진/보령시청 제공

바다 위 길게 뻗은 소박하고 아담한 주황색 섬

충청의 섬 〈2-①〉보령 고대도

보령 오섬의 막내 섬, 고대도

섬으로 가는 뱃길은 늘 설렘이 가득하다. 고대도(古代島)는 처음 가보는 섬인데도 마치 어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듯 포근하고 따뜻한 설렘이 가슴에 차오른다. 보령 대천항에서 고대도까지 1시간여의 뱃길이 더디게 느껴지는 건 고대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마음속에서 그리던 가보고 싶은 섬, 그 섬이 바로 고대도이다.

보령시는 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등 보령의 오섬을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7년에는 섬비엔날레도 개최할 예정인데, 그중 고대도는 가장 작고 아담한 막내 섬이다. 동쪽으로 원산도와 효자도, 서쪽으로는 장고도, 남쪽으로는 삽시도가 막내인 고대도를 포근히 감싸 안고 있는 형국이다.

바다 위 떠 있는 주황색 섬

갈매기를 벗 삼아 원산도와 장고도를 거쳐 마침내 고대도가 먼발치에서 왜 이제 오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반겨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마음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마을의 지붕이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다. 아름다운 새 색시가 주황색 저고리를 입고 있는 듯 이채롭고 정겹다. 고대도가 '바다 위 주황색 섬'으로 불리는 이유다.



고대도항의 표지석.



섬비엔날레 보령오섬 사진공모전 수상작, '고대도 어촌마을(입선)' 사진/보령시청 제공



고대도항의 휴게소.



마을 벽화.

고대도는 섬 전체에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때 대부분 초가지붕이었던 주택의 지붕개량도 대대적으로 했고 이후 주민들은 지붕을 주황색으로 통일해 왔다고 한다.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지

고대도항에 도착하니 빨강 등대가 이방인을 반긴다. 고대도의 가장 북쪽, 북방파제에서 북서풍의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지키고 있다. 뱃사람들의 이정표이자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넘어 애틋한 정감을 주는 등대이다.

고대도항에는 두 개의 방파제가 항구를 호위하듯 축조되어 있다. 남쪽의 남방파제와 북쪽의 북방파제이다. 양쪽 방파제 사이 항구의 폭은 100여 m로 작은 섬치곤 넓은 편이다. 방파제 진입부에는 여객선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섬교섬 GOD愛島'라는 글귀가 새겨진 주황색 휴게소가 세워져 있고 칼 귀플라프의 범선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어 이곳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임을 알려준다.

근대 감성 간직한 마을

항구를 벗어나면 바로 마을로 이어진다. 마을은 집과 집 사이에 작은 골목이 미로처럼 연결된다. 집의 형태와 구조는 1970~19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옥이 많다. 마을 산책을 하면 시간을 거슬러 옛 마을에 있는 듯 레트로 여행의 감성을 느끼게 된다.

고대도는 섬에 옛 집터가 많아서 고대도라고 부른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대도의 순수 우리말 이름은 '고뎜'인데, 이는 '곧다'라는 말에서 유래됐고 고대도는 남북으로 곧게 뻗어 있는 섬이어서 '곧은 섬'이라는 의미로 '고뎜'이라 불렸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곧은 섬'이든, '옛 집터가 많은 섬'이든 고대도는 아담하고 소박해 누구나 정감을 느끼게 된다.

곰솔군락·광활한 바다의 하모니

고대도는 누구나 부담 없이 섬 산책에 나서기 좋은 섬이다. 면적은 0.875㎢에 불과하고 해안을 따라 둘레길의 길이도 4.3km이다. 마을을 한 바퀴 들러본 뒤 동쪽의 해안선을 산책길에 나서니, 동쪽으로 울창한 곰솔군락이, 서쪽으로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펼쳐져 있어 시원하고 상쾌하다. 항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의 끝까지 걸어서 종주해도 10여 분이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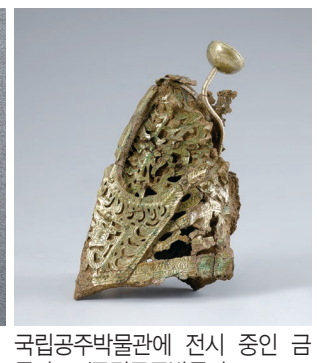
섬의 남쪽 끝에는 고대도의 가장 이채로운 상징물인 선바위가 있다. 이다. 선바위를 보노라면 그 자연적 지형이 독특한 모습에 저절로 경건해진다. 선바위는 만조에도 물에 잠기지 않고 머리를 내민 채로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이용 스토리미디어 대표

찬란한 백제 위엄 되살리다

문화유산 100배 즐기기
(6)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관모


충남역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공주 수촌리 금동관모(복원)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동관모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주 수촌리 고분군 제4호분에서 출토되어 백제의 찬란했던 위세를 보여주는 '금동관모(金銅冠帽)'입니다. 이 관모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1500년 전 백제 한성시대의 권력 지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유물입니다.

금동관모는 당시 백제 중앙 정부가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하사했던 일종의 '위세품(威勢品)'이었습니다. 지방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냈던 이 관에는 위엄 있는 용무늬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용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를 상징했기에, 이 관을 썼던 주인공은 공주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세력이었음을 짐작게 합니다. 수촌리 금동관모는 백제 중앙과 지방이 맺었던 긴밀한 관계의 단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사실, 수촌리 금동관모 진품은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그 형태를 엄격히 재현한 '복원품'입니다. 하지만 이 복원품에는 진품 못지않은 특별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시중의 일반적인 모조품이 아니라, 철저한 학술적 고증과 전통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백제의 장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재현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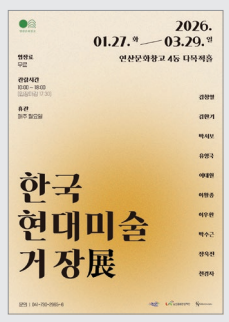
유물의 형태와 문양, 무게, 심지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금동의 색감까지 구현하기 위해 박물관의 복원 과정에는 수많은 연구와 정교한 공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기술적 복제를 넘어, 백제인의 숨결을 현대에 되살려내는 창조적인 기록의 연장선입니다. 유물에 대한 깊은 학구열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책임감이 투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촌리 금동관모 복원품은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지키려는 박물관의 전문적인 집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비록 재현된 금속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역사를 향한 진지한 태도만큼은 그 어떤 진품보다 귀한 우리 박물관의 자산입니다. 낡은 흙 속에서 피어난 백제의 영광과 현대의 정밀한 기술이 만난 이 특별한 금동관모 앞에서, 1500년 전 백제의 찬란한 내일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이경복



이달의 전시



한국 현대미술 거장전

기간 2026-01-27~2026-03-29
시간 10:00~18:00 (입장마감 17:30,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연산문화창고 4동 다목적홀
입장/체험 무료
문의 ☎041-730-29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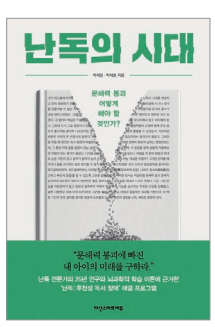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1930년대 이후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기틀을 마련한 거장 10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교과서에서 접하던 거장들의 예술적 발자취를 판화, 사후판화, 아트포스터(오픈에디션) 등으로 구성해 현대미술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작가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를 비롯해 김창열, 박서보, 유영국, 이대원, 이왈종, 이우환, 박수근, 장욱진, 천경자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가 된 거장 10인이다.

전시에서는 김환기 작가의 〈Air and Sound Ⅱ〉, 〈16-Ⅳ70-#166〉과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김창열 작가의 〈물방울〉, 〈회귀 3〉, 한국의 모더니즘을 이끈 유영국 작가의 〈나무〉, 〈산과 바다〉 등 대표작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사서들의 서재

문해력 붕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난독의 시대/박세당, 박세호/다산스마트에듀/2022

〈난독의 시대〉(박세당 외)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독해력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단순히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식의 피상적인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신 글을 읽고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장의 맥락을 오해하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을 '난독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는 개인의 독서 습관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소통 방식과 사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제시된다.

책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확산을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한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독서 방식은 긴 글을 끝까지 읽고 논지를 따라가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문제 풀이 기술에는 능숙해지지만, 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경험은 충분히 하지 못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이 학업 성취도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왜곡된 정보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책의 미덕은 난독 현상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지 않는 데 있다. 저자들은 교육 정책, 미디어 환경, 사회적 담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당사자임을 일깨운다. 특히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역시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 독해력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문제 진단은 설득력 있게 전개되지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제시된다. 독서 교육의 방향성이나 사회적 개선 방안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안되었다면 독자로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독의 시대〉는 '읽기'가 단순한 정보 습득의 수단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시민성을 지탱하는 기반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빠르게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천천히 읽고 깊이 사유하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묻게 만드는,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서라 평가할 수 있다.

/유재열 사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문화 행사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간 2026.02.07.(토)~03.28.(토)
시간 토 13:30, 15:30
장소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버블에스의 컬러버블쇼

기간 2026.02.18.(수)~03.29.(일)
시간 13:30, 15:30
장소 아산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화이트데이 콘서트 <재즈&러브>

기간 2026.03.14.(토)
시간 15:00
장소 공주문예회관
문의 041-852-0844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기간 2026.03.14.(토)~15.(일)
시간 11:00, 14:00, 16:30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88-7890



<연극> 뚱뚱한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

기간 2026.03.20.(금)~21.(토)
시간 금 19:30/토 15: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기간 2026.03.21.(토)
시간 14:00
장소 홍주문화회관
문의 041-634-0021



지브리 시네마 OST 콘서트

기간 2026.03.26.(목)
시간 19:30
장소 서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문의 041-957-9048



명곡시리즈 I <백건우&브람스>

기간 2026.03.27.(금)
시간 19:30
장소 공주문예회관
문의 041-852-0844



봄 인디, 보러 와유!

기간 2026.03.27.(금)
시간 19:00
장소 보령문화예술회관
문의 041-930-3427



2026 남진 전국투어

기간 2026.03.28.(토)
시간 17:00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88-7890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청년세대, 남녀 모두의 일· 생활 균형 양성평등이야기 Q&A

Q.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A. 지역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여, 청년정책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충남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인재성장', '정착확대', '참여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Q. 지역사회의 청년 관련 정책 이슈가 있나요?

A. 2022년부터 국가는 청년층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와 인식 파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및 청년층의 삶의 변화 관련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위하여 '청년 삶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청년기본법 제11조). '2024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 중 충청남도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육아 및 가사 부담'이라고 응답한 충청남도 청년 비율이 13.2%이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이다.

청년 세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질 경우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청년의 다양성과 차이점이 간과되는 측면이 없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직업훈련, 취업 기회, 고용조건, 노동 환경 등 일자리 관련 차별뿐만 아니라 성별, 생애주기 특성에 기반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저명한 복지국가 연구자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이러한 경향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과정으로 설명한다. 여성의 고용이 점차 보편화될 때 사회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 성평등이 진전되고 남녀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회복되며 새로운 균형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연령대이고, 출산·가구 형성의 중심 세대이다. 따라서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정책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청년 세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임우연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젠더 퀴즈

위의 글을 읽고 문제를 맞춰보세요.

1.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는 무엇인가요?
① 청년 의식 조사 ② 청년 삶 실태조사 ③ 청년 주거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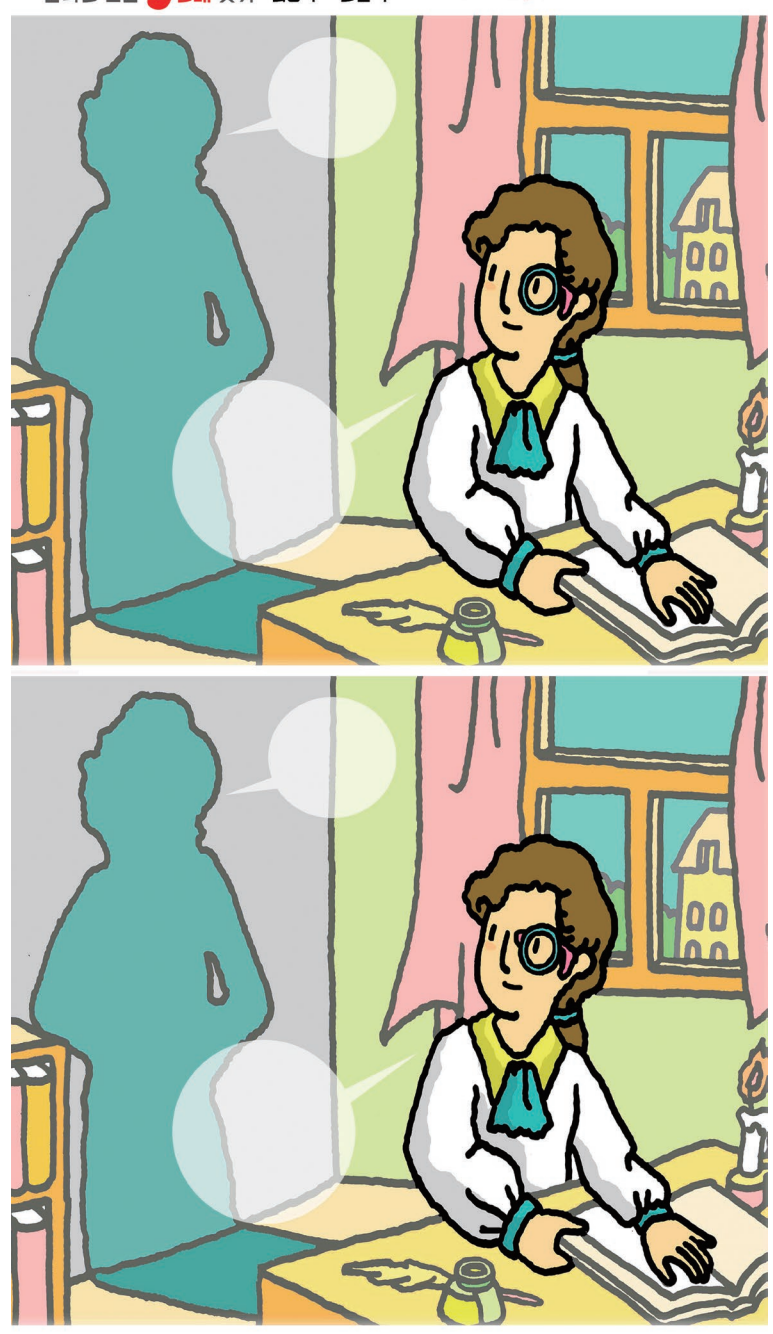
2.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인재성장 ② 정착확대 ③ 권리신장 ④ 참여증진



정답: 1.② 2.③

두뇌회전 퀴즈 - 다른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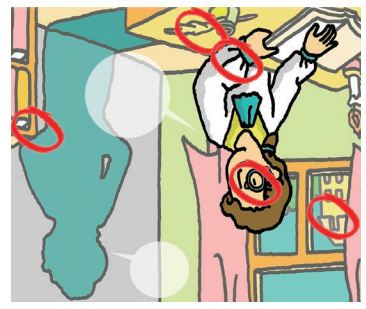
달라진 그림 5군데 찾기 / 집중력 + 관찰력 안데르센 그림동화 © 글 각색: 김복순 / 그림: 최정훈



더위에 지친 학자는 날이 갈수록 뼈가 앙상해졌고,
학자의 그림자는 점점 쭈그러들다가 어느 순간 태양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림자가 벽으로 누웠다가, 천장까지 몸을 길게 늘어뜨릴 때가 좋았는데….'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그림 속 말풍선에 자유롭게 글을 넣어보세요.

© 글 각색: 김복순 / 그림: 최정훈



정답:

입 돌아가는 병 '구안와사'

공공의료원 칼럼

흔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는 중장년층에게 큰 공포로 다가오는 질환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 반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물을 마실 때 입 옆으로 새어 나오는 경험을 하면 뇌졸중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구안와사는 뇌 자체의 문제보다는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되거나, 마비된 주변으로 수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벨마비)인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면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짧게는 수일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귀나 볼 주변으로 통증이나 무딘것같은 느낌,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뻑뻑한 느낌, 이명이 들리거나 소리에 예민해 지는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치료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구안와사의 원인을 '외풍(外風), 허풍(虛風), 기혈어조(氣血瘀阻)'와 같이 나누는데 이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 바람을 쐬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병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 약침 및 전침 치료
마비된 안면 근육의 혈 자리에 침 또는 약침을 놓아 정체된 기혈을 소통시키고 신경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는 전침 치료는 신경 손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추나와 한약 처방
단순히 얼굴의 마비만 푸는 것이 아니라, 추나 치료를 통해 구조적 비틀림을 개선하여 얼굴로의 순환을 돕고, 한약처방을 통해 신경의 영양 공급을 도와 재발을 방지합니다.

매선 요법
증상이 오래된 만성기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실을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매선 요법으로 근육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면역력의 척도'라고도 불립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급격한 온도 차 주의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는 말처럼, 찬 바닥에 눕거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는 안면 신경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주를 많이 한 경우 몸의 순환이 방해되어 안면마비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안면 근육 운동
평소 '아-이-우-에-오'와 같은 입 모양 연습이나 풍선 불기, 윙크하기 등의 근육 자극을 생활화하면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면마비 치료의 핵심은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 치료가 늦어질수록 안면 연축이나 악어의 눈물 같은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주저하지 말고 한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의 염증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지키는 힘은 빠른 결단에서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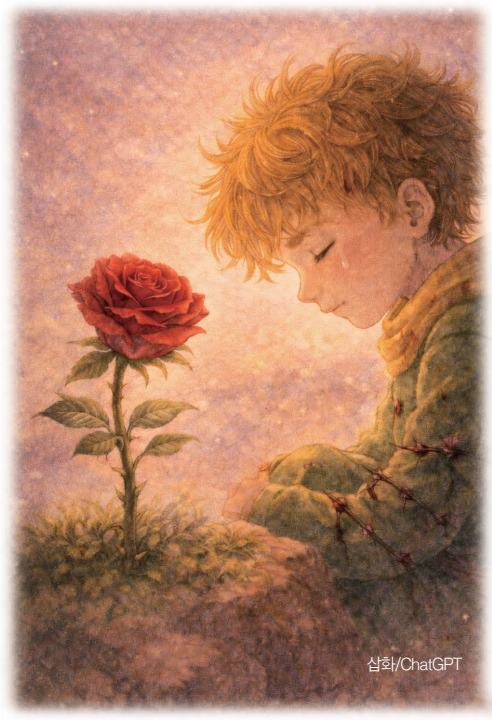


이 태 윤
공주의료원 한방과장

장미의 변덕에 별을 떠나기로



충청도 사투리로 읽는 어린왕자


삽화/ChatGPT

그러던 워니 날이었지. 워딘 중 무르넌 곳서 날러온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어. 어린 왕자는 딴 꽃과는 즌혀 달븐 그 작은 가쟁이를 곁에서 오래 지켜봤어. 그건 츰 보넌 바오밥낭구 같었어. 그 째끄만 낭구는 금방 자라기를 멈추더니 곧바루 꽃대공을 세웠어. 크다렇구 동고랗게 솟어나넌 꽃망울을 본 어린 왕자는 그 망울 속이서 새론 시상이 펠쳐지리라넌 걸 느꼈어. 푸른빗의 꽃받침 속이 숨어 꽃은 오묘헌 빗깔루다 치장을 시작혔어. 아주아주 느리구두 찬찬이 빗깔이다 증성을 딜였지. 째금썩 입을 벌리매 망울은 꽃잎새기루 븐신을 혔어. 꽃은 자신의 입설이, 얼굴이, 최고루다 이뿌게 펴나구 싶었던 거여. 그려! 그렇기 멋을 아는 꽃이었어! 까닥을 알 수 없넌 꽃의 치장은 메칠 간 이서졌지. 그러던 워니 날 동이 틀 적이, 그 아침이, 꽃은 얼굴을 활짝 내밀었어. 너머나두 세심허게 치장을 허너라 피곤혔나 봐. 꽃은 하품을 늘어띠리매 입을 열었지.

"우아! 지우 일어났네. 늬가 이해 점 혀줘. 머리를 다 매만지덜 뭇혔거던."

어린 왕자의 입이 쩍 불어졌어.

"우와. 넌 증말루 증말루 이뻐!"

어린 왕자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별에 씨앗 하나가 찾아왔어요. 빨간 장미예요. 싹을 틔우고 막 피어난 장미를 보며 어린 왕자는 탄성을 질러요. 바람이 다가오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해줘요. 목이 마를까 물을 줘요.

그런데요. 세상은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장미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예요. 속이 빈 변덕꾸러기예요. 시시때때로 괴롭히며 가시로 어린 왕자의 가슴을 찔러댔어요. 사실 장미는 어린 왕자를 사랑했지만, 표현 방식이 아프고 일방적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상처를 입고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해요.

사랑은 일방의 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생각지 못한 상처를 서로에게 주곤 하죠. 어린 왕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 재 시인







KO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통·번역기 대신 지게차 운전대 잡았죠”

충남이어家

대를 이은 열정과 도전
⑬ 서산 대우목재

학창 시절 중국·뉴질랜드 거쳐 10년 해외 생활
가업 잇기 위해 귀국, 동생과 함께 현장 누벼



대우목재 이선복 대표가 목재 창고에서 이어가 현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학창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며 외국어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통·번역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충남 서산시에서 나무를 다루는 목재회사의 대표가 됐다.

대우목재 이선복(36) 대표는 15살부터 중국과 뉴질랜드 등 해외 각지에서 10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가, 10년 전 부모님의 제의로 한국에 돌아왔다. 현재는 동생 이태복 씨와 함께 아버지가 30여 년간 일군 회사를 이어받아 경영 일선에 서 있다.

대우목재는 1994년 서울 방이동에서 시작된 작은 건축자재 소매점이다. 이후 경기도 하남시를 거쳐 2002년 지금의 서산시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단순히 자재를 유통하는 단계를 넘어 도어, 문틀, 샷시, 찜질방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종합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했던 이 대표에게 건축업계는 생소하고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전공했던 업종과는 결이 전혀 달랐고 모든 실무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일을 체득해 나갔다. 특히 아버지가 오랜 시간 쌓아두신 탄탄한 인맥은 좋은 자재를 구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그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자동화 기계로 교체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회사의 체질 개선에 전념했다.

올해로 경영 10년 차에 접어든 이 대표가 가업을 이어가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올바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정직한 자재 공급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영업을 하다 보면 마진을 높이기 위해 낮은 품질의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이용해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저품질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외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켜오신 가업의 올바른 정신까지 승계받았음을 항상 인지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합류로 대우목재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던 판로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고객뿐만 아니라 외지 업체의 유입도 이끌어냈다. 특히 해외 생활을 통해 쌓은 외국어 소통 능력은 큰 강점이 됐다. 그는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직접 참관하고 메일을 통해 해외 업체와 소통하며 자재 샘플을 직접 공수하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외에서 고품질의 건축자재를 수입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장 경영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무거운 목재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장비를 몰고, 건축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어릴 적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가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있으니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고 끈끈한 가족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문과 그가 쌓아온 인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그는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분야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였기에, 현장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유튜브나 전문 서적을 통해 유행하는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꾸준히 익히고 있다. 현재 대우목재는 서산 본점을 중심으로 당진에도 분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대표는 향후 분점까지 더욱 활성화하여 원자재 수입부터 생산,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든 deun127@korea.kr

71세에 관광학 박사 학위 취득

표경덕 홍성서부농협 조합장
5년 간 석·박사 완주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홍성 서부농협 표경덕〈사진〉 조합장이 2월 25일, 경희대학교 관광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6년생, 우리 나이로 일흔하나. 누군가는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그는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박사 과정에 합격했으며, 대학원 내 수석 졸업과 총장상까지 거머쥐었다.

표 조합장의 도전엔 개인의 성취보다 2023년 서부면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의 아픔,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향한 고민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

박사 논문 주제도 ‘산불 재난지역 주민의 장소 애착이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 영향 인식 및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는 2023년 서부면 일대 임야 430만 평이 소실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다.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관광지로 재생한 연구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에 그치지 않고 ‘2023년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벌꿀, 열매, 뿌리 등 쓰임이 좋은 헛개나무 밀원 단지와 고령화에 걸맞은 치유 숲길 등으로 복원해 농가 소득과 관광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그가 구상하는 산불 피해 지역 활용 방안은 관광·치유·체험을 결합한 복합 모델이다.

/홍주신문 김경미 기자

당진 기지시 정월대보름 행사

줄다리기보존회·축제위원회 주최
달집 태우기 등 풍년·건강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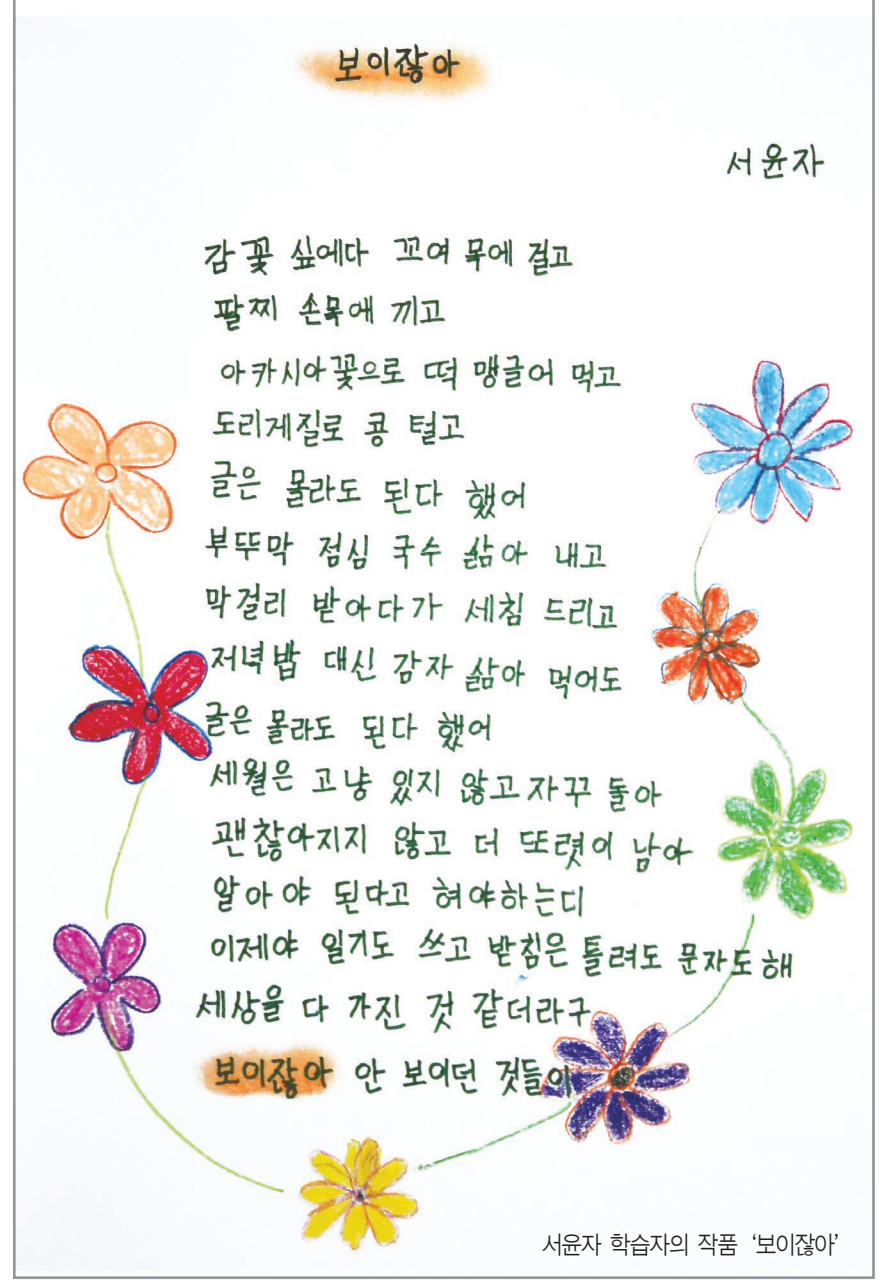
3월 2일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축제위원회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2026 기지시줄다리기와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고, 달집 태우기를 진행했다. 〈사진〉

달집태우기는 음력 1월 15일 달이 떠오를 때 나무와 짚 등으로 만든 달집에 불을 붙여 액운을 태우고 복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달집이 활활 잘 타오르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본행사에 앞서 열린 지신밟기와 볏가릿대 세우기, 서낭제에는 어린이들이 대거 참여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시민들은 달집에 저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붙이며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서윤자 학습자의 작품 ‘보이잖아’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숨쉬는 동네 만들기 실험, 바르셀로나 기후계획과 슈퍼블록 정책

내포칼럼



여 형 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작년 4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기후계획)을 모두 수립하였다. 기후계획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아마 행정 담당자와 계획 수립자는 특정 숫자와 그래프로 보여주는 목표를 먼저 꼽을 것이다. 몇 년까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이겠다는 약속이나 전기차 보급 대수, 도시숲 조성 면적 같은 지표들이 대표적이다. 행정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량적 목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어떠할까. 아마도 이러한 숫자보다는 기후계획을 통해 내가 거주하는 동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궁금하지 않을까.

현재 기초지자체들의 기후계획은 건물,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배분해 집행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특정 생활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난 대응, 복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틀 안에서 결합하려는 전략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등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했을 때 도시의 미래상이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나 그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기후계획과 슈퍼블록 정책은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위한 계획이 내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활동과 연계되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바르셀로나는 2018년 발표한 기후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하고 도시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도시와 비슷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치적 목표를 풀어내는 방식이다.

바르셀로나의 기후계획은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기후 위험에 대비하는 적응,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후정의,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기후경제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를 주택, 공공공간, 이동수단 등 시민의 일상적인 도시 생활 영역과 직접 연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슈퍼블록 정책이다.

바르셀로나 도심은 19세기 중엽에 중세 성곽 밖의 평지를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직교하는 가로망으로 나누어 약 100미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블록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교통, 채광, 통풍을 고려한 설계였으나 자동차 중심 교통 체계로 변화하고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가 심각해졌다.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아홉 개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내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를 낮추며, 기존의 도로 부지를 보행자 공간과 녹지로 전환하는 슈퍼블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 **시군 기후계획에 주민들은 우리 동네 어떻게 변할까에 관심**
> **시민의 삶에 밀착된 건물, 교통, 공간의 구조변화 이끌어야**
> **일방 행정보다 삶의 공간으로 동네를 숨쉬게 하는 전략 필요**

슈퍼블록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우선으로 전환한 이후 해당 구역의 대기오염과 소음공해가 감소했다. 생활 환경이 개선되자 인근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차량 진입 제한에 우려를 표하던 목소리가 점차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시범적인 정책이 2030년까지 503개의 슈퍼블록을 만드는 목표로 확대되었다. 슈퍼블록 정책은 기후계획의 다각적인 목표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이용 억제를 통한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녹지 확대를 통한 폭염 대응 능력 증진,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 지역 상권의 활성화 효과가 하나의 계획 안에서 상호작용한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비전을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가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발전 및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기초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건물, 교통, 공공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기후계획은 상위계획의 수치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동네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바르셀로나의 사례처럼 감축과 적응, 정의와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시 전체의 목표를 동네 단위의 생활권 기준으로 번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계획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전한 보행권,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초지자체의 기후계획을 구체적인 도시 전략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다종다기한 문제들과 정책 수단들을 엮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 주도의 일방향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우리 동네의 공기가 어떻게 맑아지고 여름철 그늘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숙의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시작해보자. 특정 골목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거나 작은 유휴부지를 기후대응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의 시도들을 모아보자. 충남 기초지자체의 기후계획을 주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동네를 숨쉬게 하는 전략으로 만들어보자.

김민지 시인의 산책 편지



나와의 밥 약속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잘 챙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즉시 뭐라도 챙겨 먹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밥만 잘 먹는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에게는 좋지 않은 반복이라 오늘은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몸이 반기는 음식을 몸이 부담스럽지 않은 속도로 먹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상대해야 합니다. 바쁜데 뭘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느냐는 물음으로는 내 몸이 나아지질 않으니까요.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번번이 잘 지키지 못하는 두 가지. 싱겁게 먹기. 천천히 먹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지금 이런 몸 상태가 되진 않았을 텐데. 후회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아니 거의 모든 일 앞에서. 크게 느낍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하나. 그중에서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손댈 수 있는 것이 제 몸이라는 것을요.

아직 습관으로 다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식습관을 다잡아보면 어떨까요?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 봄부터 시작하는 새해도 꽤 매력적이니까요.

새 학기가 시작된 새봄. 새순이 돋아나는 새봄. 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된다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기다리는 새봄. 새 옷을 사주고 싶을 만큼 귀여운 아이의 모습으로 이번 봄이 온다면 좋겠네요.

이런 봄에 유행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쩍 인기라고 하네요. 힌트는 녹색. 이렇게 얘기하면 두쫀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두바이 쫀득 쿠키는 아닙니다. 두쫀쿠도 달지만 이 음식도 답니다. 달긴 해도 좀 건강하게 달아요. 이 두 번째 힌트로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예전에 〈1박 2일〉에서 강호동이 이것을 먹으며 극찬했습니다. "배추가 고기보다 맛있네요!" 하고 외치기도 했지요. 그냥 배추가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배추가 아닙니다. 이름에 이 계절이 들어



갑니다. 봄. 맞습니다 봄동!

두쫀쿠 대란에서 봄동 대란으로.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요즘 쑥뜸을 찾는 젊은 세대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토록 건강을 살뜰하게 챙기는 유행이라면 어쩐지 거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봄동은 겨우내 노지에 자란 배추로 속이 들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속이 들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잎이 옆으로 퍼져 노지를 있는 힘껏 토닥인 덕분에 봄동만의 방식으로 달아졌으니까요.

겉절이로도 훌륭하지만 따뜻한 흰쌀밥과 함께 어우러진 모양은 그 자체로 봄입니다. 주홍빛과 푸르름으로 뒤엉킨 모습이 한겨울 눈을 녹인 봄 풍경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처럼 생동하는 밥 한 끼를 스스로에게 대접해 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 봄부터는 금방 지나가는 한때를 소중한 밥때로 맞아 천천히 음미해 보기로 해요.

특별한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 **이름(성별) :** 람보(여)
* 풀네임 : 람보 르 기니
▶ **나이 :** 7살(할멈)
▶ **품종 :** 기니피그
▶ **거주지역 :** 충남 홍성군 홍북읍
▶ **직업 :** 프리미엄 건초 감별사(맛없는 건 안 먹음)
▶ **한줄 소개 :** 꾸잉(기니피그 울음 소리) 스킬 만렙! 맨날 맛있는 거 달라고 꾸잉하는 공주님
▶ **좋아하는 간식 :** 채소, 과일, 말린 꽃
▶ **싫어하는 것 :** 질기고 빳빳한 건초, 스킨십
▶ **보호자 :** 이민선

사랑스러운 우리 집 반려동물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가족이 된 계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내 반려동물에게 한마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3매 이내의 사진·동영상, 보호자 성함·연락처를 cnnews@korea.kr 로 보내주세요. 동영상을 보내주실 경우 도정신문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 041-635-4938**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역량 강화·운영체계 확립

상담관 대상 직무·선거법 교육
체계적인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충남도의회는 2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는 2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상담소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도내 곳곳의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위치한 20곳의 민원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상담관들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도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민원상담소는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현장 창구로서 고충 민원 상담, 입법 정책건의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 수렴된 도민 의견을 자료로 활용하는 등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한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공간이다.

각 지역에 위치한 상담소의 주소와 번호는 충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움아트홀, 박진균 화백 '산정무한' 展

수묵담채 작품 20여 점
'작가 만남의 날' 성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산정무한'을 주제로 인주 박진균 화백의 수묵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진균 화백이 우리나라의 산하를 여행하며 느낀 자연의 인상을 수묵담채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을 비롯해 산과 들, 계곡 등 다양한 자연 풍경을 먹의 농담과 여백의 미로 담아내 수묵화 특유의 깊이 있고 담백한 정서를 전한다.

전시는 충남의 명산 용봉산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산세를 소재로 한 수묵 작품 20여 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악계곡', '설악산 공룡능선', '북한산의 아침', '산의 노래', '울산바위', '설악 칠선봉의 여름' 등 수묵담채 작품을 통해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해 우리 산하의 웅장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시 첫날인 3일에는 박진균 화백이 직접 참여한 '작가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도의회 관계자와 직원,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 제작 과정과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은 수묵화에 담긴 자연의 의미와 표현 기법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특별한 문화 체험을 함께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은 "이번 전시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도민들에게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국화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움아트홀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움아트홀은 도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전시 첫날인 3월 3일 박진균 화백이 직접 참여한 '작가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2026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회기 : 4회 46일(정례회 1회 13일, 임시회 3회 33일)

* 예비일수 : 94일

회기별	기간	주요안건	비고
제365회 임시회	3. 24.(화)~4. 9.(목)(17일간) ※ 본회의4, 위원회9, 공휴일4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결산검사 (4.10.~4.29.)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4.25.~5.24.)
제366회 정례회	6. 10(수)~6. 22(월)(13일간) ※ 본회의2, 위원회7, 공휴일4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지방선거(6.3.) · 현충일(6.6.)

연구모임·의정토론회

북한이탈주민 차별 해소 모색

신순옥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순옥)은 2월 27일 충남창업마루나비 4층 IR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

지난해 말 기준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847명으로, 전체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약 5.7%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업교육을 통한 정주율 제고 및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등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연구모임은 신순옥 의원(비례)이 대표를, 한빛문화예술단 박미현 대표가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과 충남도 자치행정과 김다흠 주무관, 도솔문화포럼 김영일 회장, 법무법인 서도 조성규 대표, 산내들 농축산업 김의겸 대표, 해누림 청소년센터 김성미 센터장, 도솔문화포럼 한진우 사무국장 등 9명의 회원으로 구성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미흡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정책 연구

편삼범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대표 편삼범 의원)은 2월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과 보령시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를 맡고, 원종철 충남도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신영호 의원(서천2)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해양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해양폐기물 발생·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재활용 확대와 순환자원화 기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편삼범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화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과제"라며 "어업 현장과 행정,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충남 여건에 부합하는 순환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식물 산업 육성 시동

윤희신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월 27일 태안문화원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태안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단순 관상용을 넘어 교감과 치유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를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정서적 치유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의원(태안1)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와 한승원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기반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 서동철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반려식물 산업은 1차 생산 중심을 넘어 관리·치유·관광·교육 등이 결합된 3차 융복합 생활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원예 기반을 갖춘 태안은 이를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기점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반려식물 치유·관광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클리닉 및 케어 서비스 도입,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지원 논의

정병인 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2월 2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이 좌장을 맡았으며, 맹준호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충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조보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조우연 공주시 두레일터 원장, 정숙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 보호자, 최은영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장애인복지 현장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구조 개선과 근로환경 보완,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노동과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까지 충남도의회가 책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한으로 청구인이 직접 충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2,318명
※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847,705명)의 1/150 이상('25.1.10. 기준)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①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②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Go Now)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 의회 부의 및 의결

※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KO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